

GRI
Makes a Better Future for Korea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 작성 오재호 /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arhan@gri.re.kr 031-250-3139)

목 차

쟁점과 대안

- I. 과거 청년, 현재 청년
- II. 갈수록 열악한 청년 현실
- III. 청년 가치관 이해
- VI. 시사점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One must leave enough and as good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 John Locke -

쟁점과 대안

한국 근대화,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청년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당시에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였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청년 역할이 간절히 요청되었고, 청년이 사명감을 갖기에 충분한 사회적 여건도 갖추어졌다. 가난과 무지는 성실한 노동과 배움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였고, 성장과 발전은 청년에게 희망찬 목표였다. 멀게는 한국 근대화 시절부터 100년, 가깝게는 한국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청년은 앞장서서 국가를 이끌었고 국가와 함께 성장했다.

고속성장이 끝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지금 청년은 과거 세대 청년에 비해 사회 진입 기회가 줄었고 오히려 위축되었다. 고학력 청년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경제활동을 아예 포기한 청년도 늘고 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안정된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직업관이나 삶의 태도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 조건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성장이 끝난 시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금 청년은 무엇보다 일상의 안정을 중요시하며,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기보다 의미 있는 경험과 소비를 지향한다. 구인난에 처한 기업에 가보라고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권유하거나 단편적인 지원으로 취업을 유인하는 정책이 곧 한계를 드러내는 이유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청년에게는 척박한 현실에서도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주어져야 한다.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청년 스스로 사회 전반의 위기와 기회가 곧 자신과 직결됨을 인식해야 한다. 청년이 큰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할수록 지식보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멘토로 나서야 하며, 경우에 따라 청년과의 동반활동마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일원적 학제로 재편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교양을 두루 갖추도록 청년 역량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물질적 성과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경험과 새로운 기회를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I. 과거 청년, 현재 청년

한국 근대사회에서 청년은 국가를 이끌고 보존하는 주체

□ 개화기 청년은 나라를 구할 주체

- 개화기(1876~1910)는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기존 봉건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의미함
-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청년은 단지 인생 주기에서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 혁신, 도약,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상징함
- 외세의 침탈과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년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한편 신문명을 전달하는 등 국운을 좌우하는 기수로서의 위상을 지님

<1900년대 초 신문과 잡지를 통해 드러나는 청년에 대한 시각>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용감한 국민이 되어 쇠패한 국가 운수를 붙들여 돌아오게 하고 암매한 민족의 전도를 열어줄 자(대한매일신보, 1908.11.12. 428호)

아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며 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아무것보다도 더욱 배움에서 못합니다. (청춘, 1914.10. 1호)

큰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넓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 기운찬 것을 보고자 하는 자, 끈기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 시원한 바다를 보아라(소년 10호)

□ 기성세대를 부정하고 새로운 주역으로서의 입장 천명(闡明)

- 1900년대 청년은 기성세대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확립하고, 당파, 지역, 계급을 극복하고자 함
 - ‘청년’은 ‘젊은 남성’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로 처음 등장함
- 근면은 청년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인식되었고, 신지식 습득은 청년의 자격을 갖추는 요건으로 평가됨

산업화 시대 청년은 노동 주역이면서 부조리에 반항하는 집단

□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기반을 재건하는 데 앞장 선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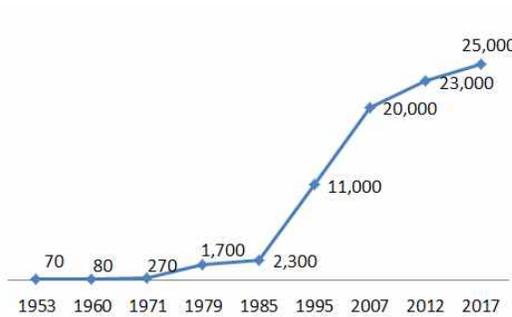
○ 전후 40년 간 경제규모가 약 20배 확대하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청년은 농촌에서 도시 노동자로 이동하여 새로운 사회 주체가 됨

- 1950년 이후 연 평균 7~8%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950년대 초 대비 199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은 9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197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져 3.1(2017년)%까지 내려감

<195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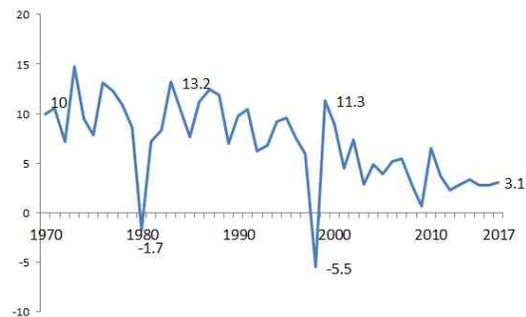
(단위 : 달러)



자료 : 한국은행

<1970 이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 1960년대 실업률은 50%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웠으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대학은 사실상 예비실업자를 양산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부조리를 타개하려는 지식인으로서 대학생의 위상은 매우 높았음

□ 정치권의 부정과 탄압에 항거하는 의식 있는 집단으로서의 청년

○ 청년은 당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선언하며 평화적 시위를 주도함

- 정치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지향함

<1960년 국회 앞 4.19 학생시위>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60년 대구 2.28 고등학생 시위>



자료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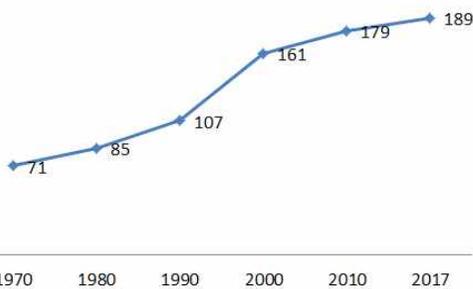
□ 교육 의무화와 평준화, 대학 진학의 수혜자로서의 청년

○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청년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큰 교육 혜택을 받음

- 1960년 9만 명이었던 대학생은 1968년 12만 명, 1974년 19만 명으로 1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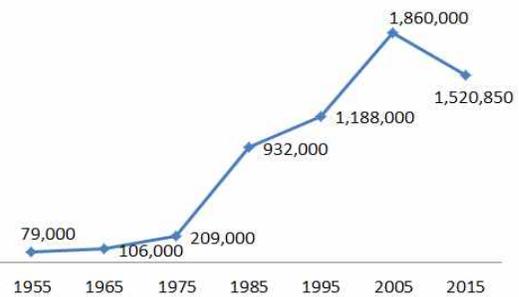
<4년제 대학교 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4년제 대학 학생 수 변화>

(단위 : 명)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독자적인 문화의 주체가 된 첫 번째 세대로서의 청년

○ 1970년대 청년 문화는 정권의 억압에 저항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는 당시 대표적인 청년문화였으며,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비롯한 금지곡 등 자유를 지향하는 청년문화는 정치적 저항으로 인식됨

<1970년대를 대표하는 청년 일상 문화들>



자료 : blogs.chosun.com,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bis.or.kr)

○ 청년 문학은 상업화에 저항하는 순수주의와 민중문학을 표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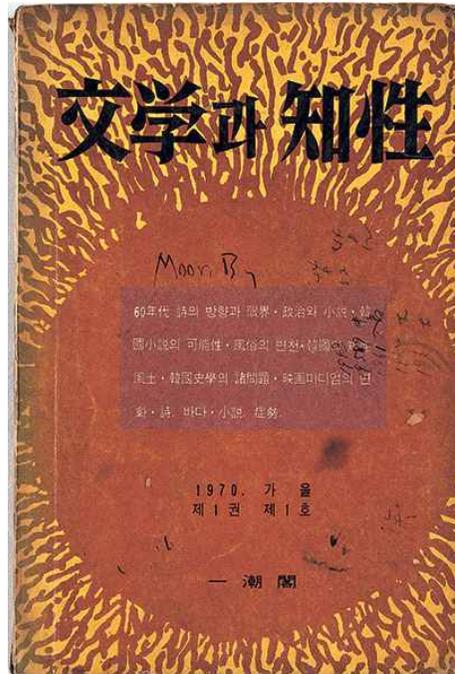
- 1970년부터 1980년대 한국 문학을 이끌어간 민중문학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입장과 의사를 주제로 다루고 이념적으로 옹호함

<문학과 지성 초대 동인들>



자료 : 세계일보

<문학과 지성(1970년 가을)>



자료 : 삼성출판박물관

<1979년 YMCA 문학의 밤 행사>



자료 : 실천문학사, “한국작가회의 40년사”

고속 성장이 끝나고 달라진 청년 위상

□ 한국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반면, 사회 참여 기회는 열악한 시대를 맞이한 청년

- 경제성장 둔화, 기업 신규 투자 급감, 기업 해외 이전, 경력직 선호,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등 개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
- 기성세대는 개발에 따른 기회와 물질적 성과를 크게 누린 반면 지금 청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 진입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함
 - 대학 졸업자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반면 고학력자에 적합한 일자리는 갈수록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취업을 오래 준비해도 노동 경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크게 늘고 있음
- 인구층이 두터운 1차 및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사회 동력을 잃지 않도록 밀레니얼 세대(1980~2000)의 역할이 중요함
 - 2018년 기준 밀레니얼 세대 비율은 전국 27%(1천 4백만 명), 경기도 38%(3백 7십만 명)을 차지함

<2018년 7월 대한민국 및 경기도 연령별 인구>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18). 『주민등록 인구통계』.

□ 사회 진입 자체가 크고 중요한 과제인 오늘의 청년

- 고속 성장이 끝나고 새로운 목표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고 작은 안정과 소박한 행복이 중요한 목표가 됨
- 열악한 사회 여건 앞에서 과거 세대 청년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던 목표들을 하나, 둘씩 포기함
 - 미래 희망을 버리고 지금에 만족하며 사는 일본 사토리세대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취미, 인간관계 등 기존 세속적 가치를 포기하였음을 시사하는 'N포세대'란 용어가 생겨남
 - 그 밖에도,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나라를 일컫는 헬조선,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자조적 표현으로서 수저계급론이 등장하여 청년이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함
- 고학력 청년 세대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양질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인생관이 생겨남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인생관을 가리키는 용어들>

구분	의미
갭이어(gap year)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하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비혼	혼인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강한 미혼과 달리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중립적 혹은 주체적 용어
딩크(Double Income No 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서 자유를 우선시하고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것
올로(YOLO)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생각에 따라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쓰죽회	'다 쓰고 죽는 모임'의 약자로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활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멀티잡(Multi Job)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생계를 잇는 것

Ⅱ. 갈수록 열악한 청년 현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유지

- 지난 4년 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으나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함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2,683만 명에서 2017년 2,774만 명으로 91만 명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724만 명에서 703만 명으로 21만 명 감소함
- 경기도 경제활동인구와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4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648만 명에서 2017년 695만 명으로 47만 명 증가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183만 명에서 186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함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천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국	전체	15세이상 인구	42,795	43,239	43,606	43,931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6,836 (62.7)	27,153 (62.8)	27,418 (62.9)	27,748 (63.2)
	청년층 (15~34세)	15~34세 인구	13,388	13,215	13,021	12,754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7,248 (54.1)	7,238 (54.8)	7,174 (55.1)	7,037 (55.2)
경기도	전체	15세이상 인구	10,179	10,365	10,548	10,760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6,488 (63.7)	6,653 (64.2)	6,767 (64.2)	6,953 (64.6)
	청년층 (15~34세)	15~34세 인구	3,295	3,275	3,245	3,222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833 (55.6)	1,870 (57.1)	1,855 (57.2)	1,867 (57.9)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 비중은 30.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 인구 70만 명이 넘는 화성, 안산, 수원, 용인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시흥, 안산에서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 사회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2017 상/하반기)>

(단위 : 천 명, %)

순위	행정구역별	2017 상반기			순위	행정구역별	2017 하반기		
		합계	청년(15~29세)	청년비중			합계	청년(15~29세)	청년비중
	전국	16,183	4,949	30.6		전국			
	경기도	3,764	1,157	30.7		경기도	-	-	-
1	시흥시	135.1	47.9	35.5	1	안성시	55.6	19.9	35.8
2	안성시	62.5	22.0	35.2	2	이천시	60.4	21.5	35.6
3	안산시	233.1	80.2	34.4	3	안산시	238.0	84.5	35.5
4	수원시	406.3	136.6	33.6	4	시흥시	144.5	49.2	34.0
5	이천시	60.0	20.1	33.5	5	화성시	198.4	65.8	33.2
6	과천시	20.5	6.8	33.2	6	의왕시	51.2	16.9	33.0
7	포천시	51.2	16.8	32.8	7	용인시	345.8	113.8	32.9
8	의왕시	53.1	17.2	32.4	8	포천시	52.8	17.2	32.6
9	오산시	65.2	21.0	32.2	9	수원시	405.9	132.2	32.6
10	화성시	184.7	58.7	31.8	10	과천시	19.9	6.4	32.2
11	안양시	190.3	60.2	31.6	11	오산시	60.9	19.4	31.9
12	평택시	157.2	48.6	30.9	12	평택시	146.9	46.3	31.5
13	용인시	349.4	107.6	30.8	13	구리시	64.6	20.1	31.1
14	구리시	64.3	19.6	30.5	14	양주시	73.1	21.7	29.7
15	군포시	94.4	28.2	29.9	15	파주시	140.5	41.4	29.5
16	부천시	283.7	83.9	29.6	16	안양시	194.2	56.4	29.0
17	광명시	112.9	32.9	29.1	17	광명시	107.4	31.0	28.9
18	의정부시	153.4	44.4	28.9	18	고양시	358.2	103.1	28.8
19	고양시	360.3	103.8	28.8	19	광주시	103.2	29.7	28.8
20	성남시	326.9	93.9	28.7	20	성남시	319.5	91.6	28.7
21	파주시	136.7	39.1	28.6	21	의정부시	154.4	44.0	28.5
22	남양주시	222.2	63.3	28.5	22	부천시	296.3	84.3	28.5
23	여주시	36.8	10.4	28.3	23	군포시	94.1	26.5	28.2
24	양주시	68.8	18.6	27.0	24	남양주시	229.9	63.7	27.7
25	가평군	18.0	4.8	26.7	25	여주시	39.1	10.7	27.4
26	김포시	109.5	29.1	26.6	26	연천군	13.0	3.5	26.9
27	하남시	66.4	16.8	25.3	27	김포시	132.6	35.2	26.5
28	동두천시	35.4	8.9	25.1	28	양평군	38.9	10.2	26.2
29	광주시	103.2	25.7	24.9	29	하남시	71.2	18.4	25.8
30	양평군	37.8	9.3	24.6	30	가평군	21.1	5.4	25.6
31	연천군	15.0	3.6	24.0	31	동두천시	34.9	8.4	24.1

자료: 통계청(2018), 『지역별고용조사』.

□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은 감소 추세

- 전국 청년 취업자 수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17년 24%로 약 13%p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39.7%에서 25.7%로 14%p 감소함
- 2000년대 경기도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전국 대비 2%p 높았으나 2017년에는 1.4%p 높은 수준으로 그 격차가 감소함

<청년층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전국	전체	21,173	22,831	24,033	26,178	26,725
	청년층 (15~34세)	7,824 (37.0)	7,499 (32.8)	6,657 (27.7)	6,751 (25.8)	6,500 (24.3)
경기도	전체	4,067	4,960	5,556	6,393	6,685
	청년층 (15~34세)	1,613 (39.7)	1,754 (35.4)	1,644 (29.6)	1,748 (27.3)	1,715 (25.7)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전국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최근 4년 간 경기도에서 증가한 5만 명 실업자 중 청년은 60%를 차지함
 - 경기도 청년 실업자 수는 2014년 9만 명에서 2017년 12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함
-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2017년 들어 전국 평균보다 0.7%p 높아짐
 - 경기도 실업률은 2014년 9%에서 2017년 9.8%로 0.8%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8.3%에서 10.5%로 2.2%p 증가함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국	전체	실업자	939	976	1,009	1,023
		실업률	3.5	3.6	3.7	3.7
	청년층 (15~34세)	실업자	378	389	426	426
		실업률	9.0	9.1	9.8	9.8
경기도	전체	실업자	216	261	264	269
		실업률	3.3	3.9	3.9	3.9
	청년층 (15~34세)	실업자	88	100	110	122
		실업률	8.3	9.0	9.8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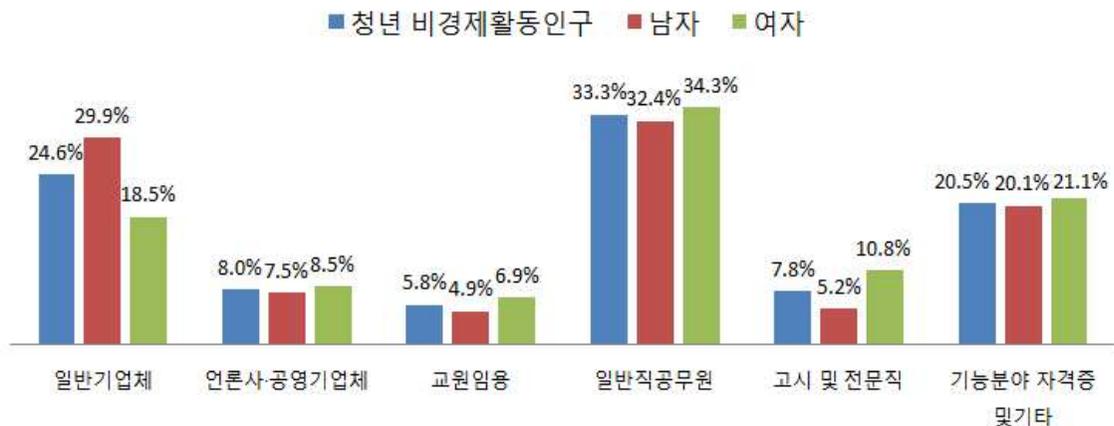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기술혁신을 거듭하는 가운데 급격히 바뀌는 노동 환경

□ 일자리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시대, 노동 조건을 끊임없이 비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2018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 전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는 25~34세 청년 실업자는 35만 명에 가까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 기업 브랜드, 안정성, 복리 후생 등 일자리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다보니 선호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기업은 구인난이 심화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부채 비율을 낮추고 수익성과 현금 흐름 중심으로 경영하는 가운데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경향이 두드러짐
-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취업준비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한정된 직군에 몰리면서 일자리 미스매칭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3.1%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일반직공무원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기업체(24.6%),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0.5%) 순으로 나타남

<2018년 5월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시험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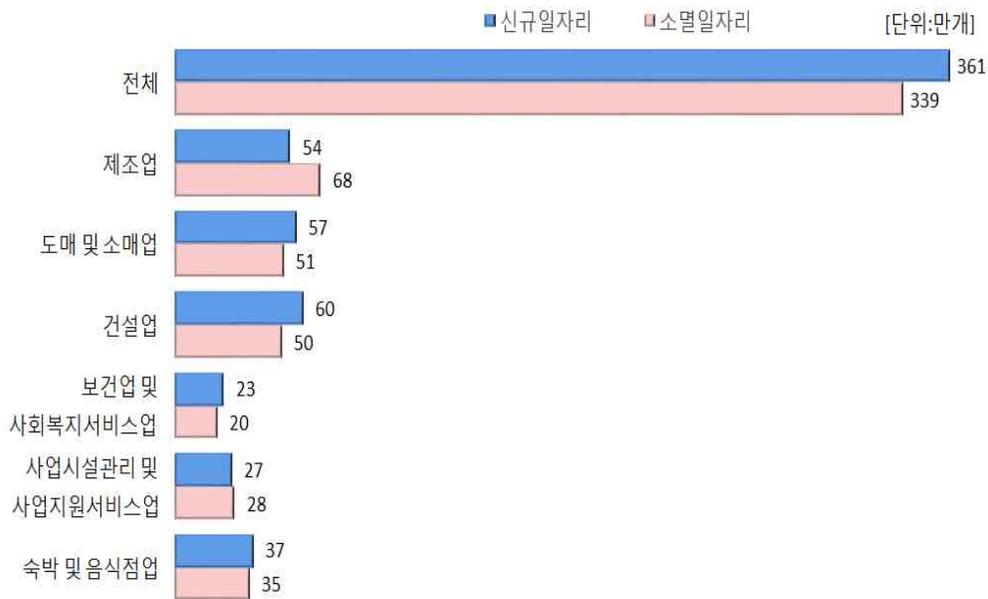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기존 일자리는 자동화로 급격하게 대체되고, 새로운 역량 요구 증대

○ 국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에 있어 청년의 사회 진입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제조업 일자리는 476만 개(20.5%)로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았으나, 소멸한 일자리도 68만 개(19.9%)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분야에서 전년 대비 일자리가 대체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4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였음

<일자리 규모가 큰 산업의 일자리 분포>



자료: 통계청(2017).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 장기적으로 일의 내용, 방식, 숙련도, 고용형태, 역량개발 등 산업구조 전반에서 변화가 불가피함

- 기계(로봇, 인공지능 등)와 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기술과 산업 융·복합화가 촉진되며, 직무 역량 개선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10년간 고용변동 요인>

고용변동 영향 요인		내용
확실성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 변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 여성 경제활동 증가, 외국인근로자 증가
	산업특성 및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간 융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과학기술 발전	로봇화, 자동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3D 프린팅, 기술 융복합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환경요인과 자원고갈, 자원경쟁 등으로 인한 국제 규제 강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회 복잡화, 개인화, 생활수준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건강, 여가에 대한 관심 및 온라인 소통 확대
불확실성 요인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국내외 경기 전망
	기업 경영전략 변화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분야별·직무별 아웃소싱, 기업 인수·합병
	정부정책 및 제도 변화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 대학구조조정, 복지서비스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

자료: 고용노동부(2017). 『한국직업전망』.

지금은 과거와 달리 청년과 국가 목표가 일치하기 어려워

- 근면, 성실을 삶의 우선 덕목으로 삼아 살아가는 시대는 저물고, 안정과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는 과정
 - 고속 성장이 끝나면서 개인 성장과 사회 발전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화됨
 - 사회가 안정되면서 사명감이나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게 됨
 -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고, 직업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등 교육관과 직업관의 일대전환(一大轉換)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음

- 과거의 외압과 경제적 곤란은 눈앞에 닥친 과제인데 반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의 양극화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위기

-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18년 하반기 0.97명을 기록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여 2065년에
 2천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현재 70% 수준에서 30년 후 약 5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연평균 34만 명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인구 100명 당 유소년 19명, 노인 18명 수준에서 2025년에는 18명,
 29명으로, 2035년에는 19명, 66명으로 차이가 급격히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3,631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3,620만 명)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향후 10년 동안 연 평균 30~40만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940만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여 2045년
 77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추계(2015-2045)>

(단위: 천 명)



<경기도 생산가능인구 추계 (2016-2045)>

단위: 천 명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2041년 2045년

자료: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Ⅲ. 청년 가치관 이해

서로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세대 공존은 우리사회 큰 과제

□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섞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소통과 갈등 문제 발생

○ 산업화 주역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10~15년 간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됨

- 명령과 복종을 체화한 기성세대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로서 교육수준과 학습능력이 과거 어떤 세대보다 높고,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익숙하며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함

<한국의 세대별 특성>

구분	출생 시기	주요 특성
1차 베이비붐 세대	1955년 - 196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 산업화를 주도하였고 가장 두터운 인구층 형성 •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며 고령화 문제 중심에 위치 • 대학 진학은 10명 중 3명에 불과
2차 베이비붐 세대	1968년 - 19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 장려 혜택을 누렸고 지금 사회 중추를 이루는 세대 •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에 성장 •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과도기 경험
밀레니얼 세대	1980년 -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로서 전체 인구 20% 차지 • 교육수준이 높고 디지털 기술 및 네트워크 환경에 익숙 •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속에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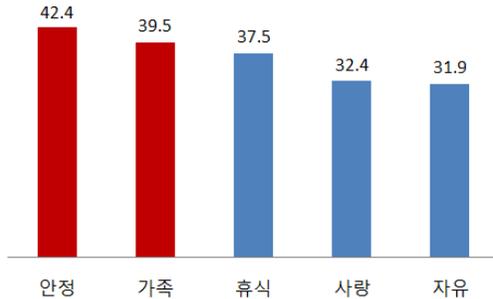
□ 2018년 대한민국 청년은 일상의 안정과 균형 잡힌 삶을 지향

○ 지금 청년은 안정, 가족, 휴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김

- 저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래를 기약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의미 있는 경험과 소비, 일상의 여유를 중요시 함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추구하는 가치>

(N: 800, 단위: %, 복수응답)



아끼고 저축하기보다 원하는 경험과 소비



성공적 미래 위한 몰입보다 현재 일상과 여유



자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2018). 『2039 행복의 조건: 밀레니얼 세대가 말하는 진짜의 Yolo』.

- 지금 청년은 단순 반복하는 기계적 역할보다 변화와 혁신을 한 축으로 하고 문화와 여가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함
- 스스로 결정하고 만족하며,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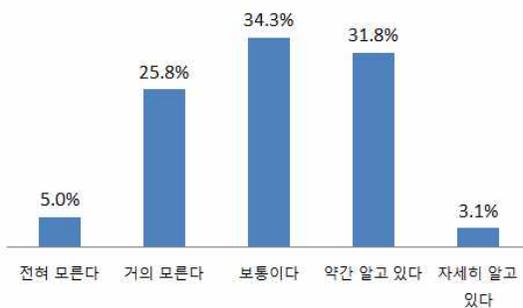
청년정책을 아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

□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지도, 만족도는 모두 낮은 수준

- 전국에서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은 40%에 못 미치며, 정책을 알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33%만 정책 내용에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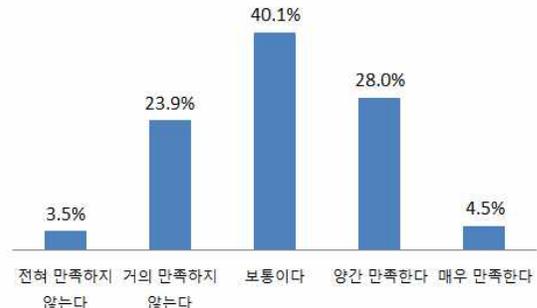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 내용 인지도>

(n=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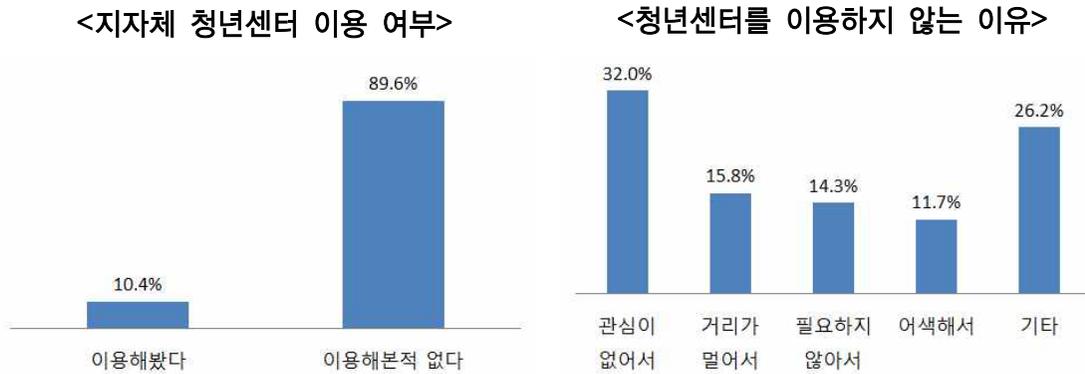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 내용 만족도>

(n=314)



자료: 대학내일 20대 연구소(2018).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수준과 만족도 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이용률은 10%에 불과함
 - 청년관련 시설은 적지 않으나 청년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자료: 취업포털 인크루트(2018). 『청년센터 이용 현황』.

- 2018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경기도 청년은 직업훈련교육(37.4%), 상담 및 컨설팅(17.0%) 등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함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우리 정책과 달리 해외 선진국 정책은 청년의 자율적 참여와 결정을 제도가 뒷받침

- 청년이 스스로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고 사회 진입을 하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
- 프랑스 청년 사회진입 정책(Missions Locales)은 지역의원, 국가, 기업,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청년 일상에서 동반 활동함으로써 청년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함
 - 프랑스는 국가에서 청년사업 재정을 충당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며, 지역 단위 독립성을 보장함

<프랑스 미씨옹 로칼 주요 내용>

단계	주요내용
기업 협조	· 기업 현황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및 교육과정 도출
청년 참여	· 청년과 기업의 계획을 연결
동반활동 계약	· 기업, 청년, 미씨옹 로칼 직원이 만나 노동 계약을 하고 재정지원 요구에 서명함으로써 일자리를 위한 교육과정 공식화
동반활동	· 지정 상담가가 청년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일자리 탐색을 위한 동반활동

- 일본 청년정책은 건전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함

<일본의 주요 청년 정책>

구분	주요내용
학자금 지원	· 경제 여건이 어려운 우수 학생에게 학자금 대여
취업알선	· 일반대학 재학생 대상 진로상담, 인턴십, 취업상담 · 니트 및 프리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 교육 실시 · 기관에서 훈련하고 기업에서 실습하거나, 기업이 채용 후 기관이 교육 담당
기업지원	· 청년 정규 고용확대를 위해 청년과 기업에게 특별장려금 지원 · 졸업생 채용정책 장려금 지원 · 청년고용촉진법 인증제 시행

- 유럽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는 청년이 미취업 및 실직 청년을 개별 지원하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럽 국가들의 주요 청년보장제도 현황>

국가명	주요내용
핀란드	도제교육제공기업에 훈련보상금 지원, 청년 진로상담, 임금보조금 지급, 청년이민자 직업훈련 및 상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
스웨덴	3개월 교육 및 직업훈련 후 업무배치, 창업자금 지원
오스트리아	기업에서 3년간 실습 경험을 하는 견습 훈련 보장, 취업서비스기관과 회사가 직업훈련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인재 채용, 청년여성 및 장애 청년 집중 지원
네덜란드	실업급여 및 사회복지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환급을 통한 고용 인센티브를 최대 2년 제공, 30세 이하 근로자 사회보험금 면제
스페인	국가고용서비스국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외국어 훈련비 지원(4,200만 유로)
벨기에	직장 내 훈련(최대 1년) 후 훈련기간 이상 고용계약
루마니아	지역별 청년보장센터를 설립하고 니트족에게 통합 패키지형 고용서비스 제공
노르웨이	실직 청년에게 교육훈련, 고용지원, 사회보장 제공
폴란드	임금보조금 및 바우처(직업훈련, 진로상담, 인턴십 등에 사용) 지급

VI. 시사점

척박한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함께 주어질 때 도전도 가능

- 청년이 미래 국가 운영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청년 정책 기조를 확립할 시점
 - 국가가 청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국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책 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함
 - 기성세대는 청년이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운영 주체 역할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함
 - 경기도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일정 비율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탐색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함
 - 직업 다양성과 청년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획일적 직업관을 개선해야 함
- 꾸준히 노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목표와 기회가 주어져야
 -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 후 현재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함
 - 기업은 채용 시 근무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전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한편, 청년은 기업 성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높여야 함
 -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취업 정책과 별개로 청년이 정치, 문화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차선택을 마련해야 함

청년에게 지식, 정보보다 구체적 경험 및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

□ 청년에게 전해야 할 것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정신과 구체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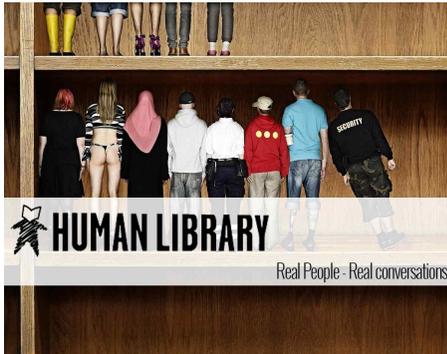
- 정의롭고 가치 있는 사회는 고도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에 의해서만 아니라 자율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의해 실현됨(John Rawls, 1921-2002)
 - 후속 세대를 단지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 앞선 세대들이 저축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정의(justice)에 부합하지 않음
-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세대가 후속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축적된 자본을 비롯해 합리적인 제도, 삶의 주요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과 지식을 모두 포괄함
- 지식·정보 검색능력이 탁월한 지금 청년에게는 독자적 학습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사례가 무엇보다 필요함

□ 경기도는 청년 멘토를 발굴하여 청년과 연결하는 역할 담당해야

- 청년의 눈높이와 기업 사정을 두루 이해하는 채용 전문가가 청년을 직접 만나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채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면접 요령을 알려주는 등 단순하고 형식적인 안내에 머물지 않고 청년이 원하는 분야별 전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 청년과 함께 청년이 원하는 멘토를 찾아 경험과 지혜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현직 활동가가 청년 멘토로 적극 나서거나, 청년이 요청하지 않은 상담, 멘토링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경기도는 청년과 함께 적합한 멘토를 찾아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년이 원하는 분야 인물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덴마크 사회운동가가 처음 시도한 인간도서관(Human Library)을 비롯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람책(Human Book)을 참고할 만함

<Human Library 홈페이지>



자료: <http://humanlibrary.org>

<서울시 휴먼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 소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의 확대, 지식의 확대, 소통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휴먼라이브러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료: 서울 휴먼라이브러리(<http://www.seoulhumanlibrary.org>)

청년의 종합 역량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필요

□ 대학을 졸업해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별도 취업준비과정 필요

- 기업은 일반교육에 소홀하고, 대학 교육은 실용성이 낮아 직업교육훈련과 일반교육이 단절됨
 - 대학 진학이 보편화한 가운데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은 필수과정이 되었고,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몫이 됨
-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는 시대에는 학력을 비롯한 형식적인 자격 조건보다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키우도록 청년과 기업을 연결해야 함
- 기업은 직업교육훈련 교과를 설계하고,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은 교육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청년, 대학, 기업이 서로 협력하도록 중재해야 함
 - 기업에서 일을 경험한 후 입사하는 인턴제와 달리 업종별 직무 역량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과정을 마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선택함으로써 취업 시장의 외연을 확대함

□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을 일원적 학제로 통합·재편하는 시민교육 필요**

-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평생직업학습을 활성화하여 단편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직업인을 양성해야 함
 - 산학협력교육 과정에서 직무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소통, 협업, 책임감, 시간 관리 등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을 병행해야 함
- 자율지능형시스템이 도입되고 노동 환경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정형화된 교육을 벗어나 일과 학습을 상시 병행하는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산학 협력과 교육 비중을 강화하도록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개방형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 스스로가 설계하는 청년학교 활성화 제안**

- 청년이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필요한 학습이 적시(just in time)에 이루어지는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특성이 각기 다른 경기도 사정을 고려할 때, 시·군 단위에서 지역 청년 중심으로 청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 지역별 청년학교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을 서로 제안하고 우수 강사 pool을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자치단체 청년학교 운영 예>



자료: 대전시, 대구시, 경기도 시흥시

【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

성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세 이상 인구	15세이상 인구	40,238	40,748	41,337	41,813	42,235	42,741	43,194	43,571	43,902	44,141
	경제활동인구	24,847	25,293	25,775	26,243	26,409	27,066	27,453	27,616	27,987	28,184
	• 취업자	23,904	24,495	24,950	25,431	25,610	26,112	26,431	26,613	26,992	27,064
	• 실업자	943	798	824	812	798	955	1,022	1,004	995	1,121
	비경제활동인구	15,391	15,455	15,563	15,570	15,826	15,674	15,741	15,955	15,916	15,956
	경제활동참가율 (%)	61.8	62.1	62.4	62.8	62.5	63.3	63.6	63.4	63.7	63.9
	고용률 (%)	59.4	60.1	60.4	60.8	60.6	61.1	61.2	61.1	61.5	61.3
	실업률 (%)	3.8	3.2	3.2	3.1	3	3.5	3.7	3.6	3.6	4.0
청년층 (15~29세)	청년층인구	9,843 (24.5)	9,743 (24.0)	9,684 (23.4)	9,552 (22.9)	9,440 (22.7)	9,397 (22.4)	9,385 (22.1)	9,378 (21.8)	9,302 (21.2)	9,157 (20.7)
	경제활동인구	4,416	4,317	4,271	4,259	4,061	4,139	4,286	4,375	4,410	4,368
	• 취업자	4,083	4,042	3,958	3,919	3,761	3,780	3,890	3,950	4,003	3,908
	• 실업자	333	275	313	340	300	359	397	425	407	460
	비경제활동인구	5,427	5,427	5,413	5,293	5,379	5,258	5,099	5,004	4,892	4,789
	경제활동참가율 (%)	44.9	44.3	44.1	44.6	43	44	45.7	46.6	47.4	47.7
	고용률 (%)	41.5	41.5	40.9	41	39.8	40.2	41.4	42.1	43	42.7
	실업률 (%)	7.5	6.4	7.3	8	7.4	8.7	9.3	9.7	9.2	10.5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